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’18.10.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적자 늪’ 한국전력의 이상한 채용잔치
(10.5, 뉴스핌)

1. 기사내용

- 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한전 등 전력공기업이 산업부의 강요로 인해 대규모 채용 실시
 - 한전은 당초 하반기 688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채용박람회에서는 1,108명을 채용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등 전력공기업에 채용 확대를 요청한 바 없음
 - 한전 등 전력공기업의 채용 계획은 정원 소요, 퇴직자 현황 등 기업별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
- ☐ 산업부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한전의 하반기 채용인원 1,108명은 채용박람회 행사 준비 초기부터 한전이 제시한 규모로서
 - ① 금번 10월 27일(토)에 합동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대졸수준 공채 688명, 고졸 채용형 인턴 134명 외,
 - ② 기능직, 경력직 등 별도 채용 절차를 거치는 286명임
 - 기사에서 언급된 당초 한전 채용인원 688명은 위의 대졸수준 공채 채용인원 만을 지칭한 것으로 보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최우석 과장 (044-203-5240)
송기환 사무관 (044-203-5250)